칭의

대문은 왜 잠겨 있지 않았을까?

0 우리는 누구인가
1 의도의 순수성
2 선행은총
3 칭의
4 자연인, 율법 아래 있는 자, 은혜 아래 있는 자
5 신생
6 성화
7 은혜의 수단
8 그리스도인의 완전
9 믿음
10 거의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11 하나님의 형상
12 그리스도의 삼중직
13 도덕법과 율법
14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15 참된 종교

속회연구원

존 웨슬리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는 은혜를 '칭의'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받아 주신다

어느 겨울날, 한 아이가 안방에서 뛰어놀다 어머니께서 아끼시던 손거울을 깨뜨렸다. 아이는 어머니께 들킬까 봐 깨진 거울을 방 한구석에 밀어 넣고 신문지로 꼭꼭 덮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날따라 아이는 참 착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당을 쓸고, 연탄재를 내다 버리고, 동생 숙제까지 봐 주었다. 이만큼 착한 일을 하면 거울을 깨뜨린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이는 속으로 그렇게 바랐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 제가 거울을 깨뜨렸어요"라는 말은 끝내 꺼내지 못했다.

아이는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려 애썼지만, 어머니께서 기다리신 것은 깨끗해진 마당이 아니었다. 숨긴 잘못을 털어놓고 어머니께 돌아오는 아들이었다. 아이가 기대어야 할 것은 하루 동안 쌓아 놓은 착한 일이 아니라, 잘못을 듣고도 품어 주실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한 것은 아이가 착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와 같을 때가 있다.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 날이면 기도하려다가도 멈칫한다. "이런 모습으로 무슨 기도를 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러면서 신문지로 거울을 덮듯 잘못은 숨겨 둔 채 착한 일부터 쌓으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우리가 쌓은 착한 일이 아니다.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죄인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나아간다. 그렇게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성경은 이 은혜를 분명히 말한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롬 4:5)." 여기서 눈여겨볼 말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쌓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 웨슬리의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표준설교 5)는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한다. 웨슬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이 이미 거룩해진 성자가 아니라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강조한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묻게 된다. "하나님, 이런 저도 받아 주십니까?" 칭의는 이 물음

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답이다. 어머니가 잘못을 털어놓는 아들을 품어 주듯,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받아 주신다.

용서는 은혜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받는다

웨슬리는 칭의를 '죄의 용서'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로 이루신 속죄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모르셔서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신다(표준설교 5).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웨슬리는 믿음이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한다.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이다(표준설교 5).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도 필요하지만, 뉘우침이든 착한 행동이든 그것이 용서의 값이 되지는 않는다. 선물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그 손이 선물값을 치른 것은 아니다. 용서의 값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치르셨고, 믿음은 그 선물을 받는 빈손과 같다. 그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값을 스스로 치르려 한다. "이만큼 했으니 받아 주시겠지"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로 값을 치르려 하고, "나는 내세울 것이 없어서 안 돼" 하는 사람은 치를 값이 없다며 주저앉는다. 방향은 달라도 용서의 값을 자기에게서 찾는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빈손이다. 그 빈손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충분하다.

죄책에서 풀려난 자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며 금식과 십일조를 내세웠다.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이 세리라고 말씀하셨다(눅 18:9~14).

집으로 내려가는 세리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말한다(롬 5:1). 죄책은 거울을 숨긴 아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숨게 한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 물론 용서받은 뒤에도 지난 일이 떠올라 부끄러울 수 있다. 그렇다고 용서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내 기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용서의 약

속이다. 성령은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롬 8:15~16).

그래서 교회는 이 세리의 기도가 편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 부족함을 드러내면 곧바로 평가받는 곳에서는 누구나 잘 믿는 모습만 보이려 한다. 그러나 칭의의 은혜를 아는 공동체는 죄를 인정하며 돌아오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하고, 그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곁에서 돕는다.

속회, 용서의 은혜를 함께 붙드는 자리

속회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 주는 자리가 아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모이는 자리다. 이것을 잊으면 '다들 잘 믿는데 나만 왜 이럴까' 싶어 입을 다물게 된다.

속회에서 한 속회원이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입을 연다. "이번 주에도 아들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그랬습니다." 잠시 말이 끊긴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둘러 충고하기보다 먼저 끝까지 들어 준다. 잘못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면서도, 그 일 하나로 그 사람을 단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요일 1:9)."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함께 용서를 구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 그가 나눈 고백은 모임 밖으로 옮기지 않고,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으로 간직한다.

물론 용서받았다고 해서 아들이 받은 상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과할 일은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과가 용서의 값은 아니다. 용서받았기에 사과할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속회원들은 그가 아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격려할 수 있다.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씀처럼 그 걸음에 함께하는 것이다(갈 6:2).

우리는 서로의 죄를 대신 질 수도, 서로를 구원할 수도 없다. 그러나 죄책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용서를 의지하도록 곁을 지킬 수는 있다. 속회는 그렇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손거울을 깨뜨린 아이는 저녁 무렵이 되어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을 맴돌았다. 어머니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해가 지고 나서야 겨

우 집 앞에 섰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성였다. 살며시 밀어 본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마루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아랫목 이불 속에는 식지 말라고 넣어 둔 밥그릇이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신문지 밑의 거울을 보셨다. 그러나 거울 이야기보다 먼저 물으셨다. "손은 안 다쳤니?"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거울을 깨뜨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곁으로 당겨 앉히셨다. 아이는 그제야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탕자도 그랬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 버리고,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뒤에야 일어나 돌아왔다. 그때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 끌어안았다. 잃어버린 재산을 갚으라고 하지도, 품꾼으로 일하며 아들의 자격을 증명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다(눅 15:17~24).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그대로 받아 주었다.

우리에게 열린 용서의 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도 "이만큼 나아졌으니 받아 주십시오"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로 바뀌어야 한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웨슬리는 「성경적 구원의 길」(표준설교 43)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하신다고 말한다. 용서받은 아이가 그날 이후에도 마당을 쓴다면, 이번에는 용서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받아 준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고 싶어진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아이가 마당을 깨끗이 쓸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돌아올 아이를 기다리던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대문도 그렇다. 우리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보고 여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조금 더 나아질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그 문을 밀어 보자. 칭의는 죄책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던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다.

"It is not a saint but a sinner that is forgiven, and under the notion of a sinner."
용서받는 사람은 성자가 아니라 죄인이며, 죄인으로서 용서를 받습니다.
(존 웨슬리, 설교 5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III.2)